

# 추 모 사

(제33회 소안항일운동기념 추모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어가는 녹음만큼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애족 정신이 커져가는 5월에 서른세번째로 열리는 소안항일운동 기념 추모제 및 제15회 전국 학생 문예백일장 대회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 독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추모의 정을 삼가 머리숙여 전하며, 독립 유공자와 후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선열들의 소안항일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사)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 김광선 회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레의 섬! 항일의 섬! 태극기의 섬! 소안도”에서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제15회 전국 학생문예백일장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소안도는 1909년부터 13년간에 걸친 토지제쟁 사건 승리 기념으로 1923년 사립소안학교를 설립해 독립운동을 즐기치게 전개한 ‘항일의 섬’입니다. 수의위친제, 배달청년회, 노농대성회, 살자회 창립 등을 통해 즐기치게 조국 광복을 외쳤던 곳으로 소안도 주민 6천여 명 중 8백 명이 ‘불령선인’으로

감시를 받았고, 송내호, 송기호 형제 등 22명이 국가서훈을 받아 면(面)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가 배출된 섬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 주민들은 한겨울에도 불을 때지 않고 이불을 덮지 않으며 항일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열의 의로운 몸짓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늘 빛나고 있습니다. 선열의 항일 정신과 독립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진 역사는 “우리의 뿌리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 문예 백일장 대회는 항일 독립정신을 후손에 계승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뜻깊은 행사로 발전하고 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호응도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뛰어난 작품은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이며, 선열의 독립정신을 되돌아보고 후손의 문헌정신을 고취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완도군의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그 길을 다짐하며, 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의로운 행동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끝으로 소안항일운동기념 추모제를 준비하신 소안항일운동 기념사업회와 국가보훈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민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23.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